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219
----------	------

발의연월일 : 2025. 1. 3.

발 의 자 : 서영석 · 박해철 · 이해식  
임광현 · 박홍배 · 윤준병  
박민규 · 노종면 · 김 윤  
윤종균 · 윤건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그런데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약물 반출, 공중 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의료법」과 유사하게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장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소유자등의 요청 등의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규정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등).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개설)”을 “(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없다”를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2. 동물의 소유자등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대하여 진료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동물이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제17조(개설 등) ① ----- ----- -----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여야 한다.
<신 설>	1.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응급 처치를 하는 경우
<신 설>	2. 동물의 소유자등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신 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신 설>	4.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대하여 진료하는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동물이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p>② ~ ⑤ (생 략)</p> <p>제39조(벌칙) ① (생 략)</p> <p><u>&lt;신 설&gt;</u></p> <p><u>②</u> (생 략)</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3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p>
--	--